

# 민주 “서울광장 지켜라” 장외 투쟁

민주당이 장외 끝에 마침내 9일 ‘거리’로 나섰다.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기간이 마무리된 지난날 31일 정세균 대표가 국정기조 전환 등 이른바 5대 요구사항을 내걸며 대(對) 공세의 포문을 연 지 9일 만이다.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개최하려는 ‘6·10 범국민대회’를 경찰과 서울시가 불허한 데 반발, 시한부 장외투쟁에 돌입한 민주당 의원들이 9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광장개방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정부의 봉쇄 작전에 맞서 이날 오후 소속 의원 전원이 서울 광장에서 대책회의를 여는 등 범국민대회가 마무리되는 10일 오후 7시까지 시한부 농성에 들어갔으며 보좌진을 비롯한 당직자와 당원들도 대거 참석했다.

민주당이 일단 강공을 선택한 것은 ‘서거 정국’으로 형성된 현 정부에 대한 이반 민심을 ‘거리’에서 한 데 묶어 내면서 그 중심에 서야 한다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혼란스러운 정국에서 주춤하던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 여론을 당으로 흡수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원외에서도 주도권을 상실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의 발로라는 얘기가.

그렇다고 민주당이 국회 등원을 무작정 거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1년 전 촛불정국에서 재야세력에 밀려 주도권을 잡지 못하다가 따가운 시선 속에 등원했던 악몽이 되풀이될 수 있는 까닭이다.

따라서 이번 장외 카드는 일단 거리에서 제1야당의 존재감을 확인시키면서 이를 발판으로 원내에서 한나라당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비록 1박2일의 시한부 집회라는 꼬

## 오늘 오후까지 1박2일 시한부 농성

## 경찰 강제 해산 방침에 충돌 가능성

리표를 달긴 했지만 87년 6월 민주화 운동의 도화선이었던 6·10을 앞두고 민주당이 강공으로 나섰다. 정에서 정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6월 임시국회 등 향후 정국의 주도권은 6·10 범국민대회 이후 형성된 여론의 흐름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여야 모두 사태 전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날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여의도

의 한 호텔에서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등 시민사회단체 원로들이 주도하는 시국간담회에 참석, 상호 공조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정세균 대표는 정부가 6·10 범국민대회를 불허하고 집회 장소인 서울 광장을 봉쇄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긴급 성명을 통해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며, 6월 민주항쟁

의 정신과 가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은 이명박 정권의 오만한 국정운영이 빚은 최악의 국가적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한편 자유총연맹이 먼저 10일 서울 광장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를 접수, 진보와 보수 단체 간의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10일 서울 광장에서 열리는 범국민대회 진행 결과에 따라 정국의 흐름은 상당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이라며 “특히, 행사 진행 과정에서 공권력과의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다면 파장은 겹겹이 수 없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4대강 살리기는 낙동강 살리기”

## 강운태·이용섭 등 지역 국회의원들 비판 잇따라

정부의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발표(8일) 이후 광주·전남지역 의원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무소속 강운태 의원은 9일 이날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계획에 대해 “낙동강 살리기에 편중됐을 뿐 아니라 해당 자치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주요사업이 누락된 일방통행식 사업”이라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2년까지 4대강 살리기 본사업

비 16조9천억원 중 낙동강에 58%)가 투입되는 반면에 영산강은 15.4%로 낙동강 살리기 예산의 4분의 1에 불과하다”며 “특히 4대강 살리기의 중심은 수질개선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의 17%인 3조9천억원만 편성됐고 영산강도 수질개선대책이 483억원 밖에 반영되지 않아 2012년까지 본류 수질을 평균 2급수로 끌어올린다는 정부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의 계획에는 영산강 수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광주시 하수관거 정비 예산 2조원이 반영되지 않았고 장차 광주 내륙항 건설에 대비하는 박진나루 워터프론트 사업도 포함되지 않는 등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요구한 사업이 대부분 빠졌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홍수피해를 예방하고 물 부족에 대비하는 취지에 벗어났으며 부동



강운태 의원 이용섭 의원

산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우선 “준설량 증가와 갑문으로 사용될 수 있는 보의 수를 대폭 늘리는 등 대운하사업의 전단계사업으로 파악된다”며 “또 수질개선의 취치와는 달리 오히려 수질오염과 생태계를 파괴시켜 강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MB-박근혜 ‘화합의 만남’으로 돌파구

## ■ 승부수 던진 박희태 묘책 있다

급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한나라당의 쇄신 과동이 박희태 대표의 승부수로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박 대표가 내놓을 대화합 묘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대표는 지난 8일 “대화합을 위해 직을 걸겠다. 신명을 바쳐 노력하겠다”며 “그렇게 긴 세월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당내 초선 개혁성향 의원들의 모임인 ‘민본21’을 비롯한 쇄신파가 박 전 대표의 사퇴 시한을 6월 말까지로 시한을 못박으면서 지도부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머지않은 시점에 공개될 박 대표의 묘책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와의 근원적 화합책 마련, 당·정·청 탕평인사 건의 및 시행, 화합형 대표 추대론 등이 검토되지 않았느냐는 관측이다.

원희룡 쇄신평의원장은 9일 “박 대표가 ‘근원적 화합’을 말했다”며 “이는 경선 승복을 한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국정동반자 선언이 있었지만, 현재까지 그 실천이 부족했으며 이것이 근원적 화합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이를 변화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 스스로 ‘김무성 원내대표 카드’를 ‘소화합’이라고 평가한 만큼 ‘대화합’은 더욱 높은 수

준의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맥락에서 박 대표가 계파 수장인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 간 화합의 토대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에 착수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우선 사전조율을 통해 대화합의 뚜렷한 메시지나 명확한 행보를 약속한 뒤 두 사람을 만나게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또 ‘대타협’을 기조로 내걸, 청와대의 전면 인적 쇄신을 통해 친박 인사를 증용하는 방안도 이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도 있다.

아울러 화합형 대표 추대론, 즉 박근혜 전 대표 내지 박근혜 전 대표가 지명한 인사의 대표 추대론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기존 ‘김무성 원내대표론’을 확대 발전시킨 개념인 셈이다.

하지만, 박 전 대표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친이계의 움직임에 의구심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가능한 이 대통령 측과 일정한 거리를 두려는 것이 박 전 대표 측의 일관된 전략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친이와 친박 모두를 잠재할 수 있을 만큼 뚜렷한 명분을 가진 묘안만이 박희태 대표가 당초 기대한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안상수-이강래 ‘개헌 논의’ 공감

## 조문정국·미디어법 등 현안 놓고 날선 공방

## 여야 원내대표 관훈토론회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정치권에서 권력구조 개편 등 개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가 9일 개헌 문제에 대해 공감대를 이뤄 주목된다.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 6월 임시국회와 조문정국, 비정규직법, 미디어법 등 각종 현안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으나 개헌 필요성에 대해 선의견일치를 봤다.

다만 민주당이 대통령 사과 등 노

전 대통령 서거 관련 문제를 정리한 뒤 개헌을 논의하자며 사실상 전제조건을 달아 실질적 논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안 원내대표는 “재왕정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통령이 되면 모든 것을 얻고 지면 모두 잃는 ‘올 오어 나싱(all or nothing)’ 게임”이라면서 “권력을 분산시켜 지더라도 다른 기회가 있고 또 권력을 나누니까 괜찮은 구조로 가야 한다. 그런 게 바로 ‘분권형 대통령제’로 프랑스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과 수상의 권한을 분산시켜 대통령은 직접 선거로 뽑고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뽑아 권력

을 나눠 (국정운영을)해 나가면 이렇게까지 지열하게 정쟁이 벌어질까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경제 위기가 극복되면 본격적으로 거론될 것 같다”고 희망했다.

이 원내대표도 “노 전 대통령 서거가 잘못된 통치구조 때문에 오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고 일부 언론에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봤는데 여당이 만약 책임회피를 위한 면피용으로 이런 문제를 제기한다면 경제할 것”이라면서 “6월 국회를 통해 통치구조 등 개헌 문제에 대해 하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연합뉴스

## 노건평 ‘동생 역대 시계 몰랐다’

민주당 ‘이명박 정권 정치보복 진상규명특위’는 9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 씨를 면담했다.

건평씨는 면담에서 노 전 대통령 부

부가 받았다는 ‘범종시계’와 관련, “내가 동생(노 전 대통령)의 환갑 전날 태광실업의 한 직원으로부터 시계를 받은 뒤 한참 후 동생 부부가 봉하마을로 내려왔을 때 아내를 통해 권양숙

여사에게 전달했다”며 “동생은 그 사실을 몰랐으며 나도 얼마짜리인지 전혀 몰랐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검찰이 ‘1억원 짜리다’, ‘노동령에 버렸다’는 등 혐의 사실과 관련 없는 부분까지 얘기한 것은 너무하다. 너무 악의적이었다” 주장했다고 특히 측은 전했다.

/연합뉴스

**원어민 | :) 영어회화**  
**영어회화, 꼭 해야합니다**  
 · 2012년 교과부 한국형 TOEFL 말하기 고득점을 위해  
 · 광주유니버시티 외국인 맞이를 위해  
 · 여수해양 EXPO 외국인 관광객 맞이를 위해  
 (강의형태 1:1, 1:2, 10:20, 20:40)

**초·중학교 영어수업도 화상영어로 합니다!**  
**인터넷 화상 영어**  
 실시간 전자학습

**외국인 1회 매월 60분**  
**압구정영어회화**  
 www.영어말하기.kr

압구정 Trend, 압구정 Pride  
**070-7433-0594**

**= 2010년 합격율 대비한 여름방학 대특강! =**

**7·9급 공무원 소직렬**

**3040 합격특별반모집** 행정안전부 공무원채용시험준비반, 경찰공무원채용시험준비반, 소방공무원채용시험준비반, 5년차 소방인력 8395명 응원한다

**시험일정 및 채용인원**  
 · 시험일: 국·공: 6월 4일 / 7급: 7월 11일  
 · 시험장: 대전 4월 / 7급: 9월 11일  
 · 채용인원: 7.9급 국가직 4천명, 지방직 4~5천명  
 = 대한민국 공직합력의 선구자! =

**수강료 보조금 수혜안내**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취업지원금으로 1인당 수강료 100만원 지원 혜택을 준다  
 · 국가보훈처 및 어르신복지사업 수혜자 50% 국가보훈처에서 수혜혜택을 받는다  
 = 주간반 2개월, 야간반 3개월 완성 =

**※ 여름방학 이벤트: 종합반 2개월 이상 등록자에 한하여 교재 5권 무료 증정(가액 185,000원대)**

**무등고시학원**  
 www.mdgosl.co.kr  
 광주 동구서위 (중원초교 후문앞) ☎ 222-4560

**전국 최고의 교수진 합격 보장! 전문 시스템 원장 안명섭**

**개강 매월 초(합격시스템)**

**경 찰 메가경찰학원**  
 www.gmega.co.kr  
 전남여고 후문 학원가 ☎ 226-5050

<b>6개월과정</b> · 27월 원성 3회 반복학습 · 영어기초이론 수강생 한함 · 수강료 25%/D/C 교재 15%/D/C	<b>1년과정</b> · 27월 원성 6회 반복학습 · 영어기초이론 수강생 한함 · 수강료 50%/D/C 교재 15%/D/C	<b>합격배출 1위 교수진</b> · 영어 이명섭 · 경찰 경이 70% 합격률 · 폭박 적어 숨겨 길이 · 강의 경력 15년	<b>경찰학 오리</b> · 신 경찰 경이 기르 직감 · 남부 경찰 학원 진원 · 광주대기 경찰 학원 진원	<b>수사 처주은</b> · 강의 경력 22년 · 광주 순천 대인 진원 · 광주대기 경찰 학원 진원
<b>영어 이명섭</b> · 경찰 경이 70% 합격률 · 폭박 적어 숨겨 길이 · 강의 경력 15년	<b>합격 배출 1위</b> · FIRST 직감 형법 직감 · 노련한 진원 경찰 진원 · 광주대기 학원 진원	<b>합격 배출 1위</b> · 사법 1차 3회 합격 · 사법 2차 100% 합격률 · 형사법률대행이 확보되었다.		

SINCE 1965 학원설립인가 제20회시험 10월 25일

**44년 전통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광주지역 최다 합격자 배출 [ 광주지역 3,200여명 1회~19회까지 ]**

**여성 최고의 전문직 아파트관리소장 주택관리사 9월 20일 시험**

**6개강 6월 1일** (첫전도 시역반)

**국비지원 선착순**  
 직장인을 위한 수강료 환급과정

**광주고시학원**  
 본원 ☎ 227-8003 전남여고 맞은편 3층  
 현관 ☎ 971-0002 광주은행 현관 옆 4층